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주민 삶 속으로 들어가는 '내 곁에 구청장' 되겠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광주 서구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내 곁에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마을에서, 골목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이강 광주시 서구청장은 17일 “주민과 함께 서구 발전을 이끌고, 공직자와 함께 주민 행복시대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구청장은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이유는 서구민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내 곁에 구청장'이 되겠다”고 구청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8기 서구 비전으로는 ‘함께서 구 우뚝서구’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서구민 30만 명과 ‘함께’하며, 하나 된 힘으로 서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내겠다는 김 구청장의 각오가 담겨있다.

또 5대 구정 방향으로 ▲마을중심 자치도시 ▲골목중심 경제도시 ▲사람중심 복지도시 ▲생태중

사람과 마을, 경제가 상생하는 골목중심 경제도시 서구 완성
아이 보육부터 어르신 노후까지 포용하는 복지 울타리 만들 것

심 안전도시 ▲행복중심 문화도시 등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가장 먼저 ‘마을 정부’를 갖춰 서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즉시 반응하는 생활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서구정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18개 동이 구청의 업무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마을정부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 정책과 예산, 사람을 움직이는 일 등을 운영하는 구조다.

김 구청장은 “서구의 새로운 변화는 서구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 마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일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서구청은 마을정부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하고 지원해 마을중심 자치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구청장은 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골목경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골목중심 경제도시’ 비전도 내놔다.

18개 동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소통테마 길을 조성, ‘걷고 싶은 도시’, ‘겉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테마 길을 골목상권과 연결해 사람과 마을, 경제가 상생하는 골목중심 경제도시 서구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서구민 30만명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행정’도 약속했다. 어린아이 보육부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까지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 울타리를 만들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이를 위해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도움의 손길을 결합한 ‘함께서구 돌봄체계’를 완성해서 자치형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도 복지의 하나”라면서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던 사소한 불편사항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하는, 사람중심 복지도시를 실현하는 생활밀착형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 또한 김 구청장이 강조하는 비전 중 하나다. 민선 7기 때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을 겪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후위기, 자연재난,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안전 1번지 서구를 위해 행정에 대한 신뢰부터 다시 쌓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만큼은 한 치의 오차나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안전한 돌봄공동체를 만들고, 서구민이 참여하는 탄소소 에너지 자립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안전서구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4년 뒤 ‘김이강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행정이 신뢰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무게감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일 때 믿음이 깊어지고 신뢰 지수가 높아진다. 서구에서 믿음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을 역임한 뒤 광주시 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용섭 민선 7기 광주시장 당선인 비서실장, 정무특보, 대변인을 연이어 거치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노숙인 주거지원 업무협약 (사장 정민곤)은 최근 광주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노숙인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 환경보건 조례 공포...환경성 질환 예방 방안 마련

광주시는 “최근 환경보건 조례를 공포해 관련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 환경보건 계획 수립·시행, 지역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조치, 지역 건강 영향조사반 구성·운영 등 관련 내

용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에게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환경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혜천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조례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16곳 교통환경 개선공사

연간 5건 이상 발생한 지역
차로 조정·교통안전시설 설치

광주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같은 지점에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16곳이다.

사업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동일 위치에서 연간 5건 이상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가 함께 지점을 선정하고 차로 조정, 기하구조 개선, 교통신

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해 교통환경 개선 및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삼거리, 운암사거리(문화예술회관), 무동경시장 사거리-신안동 광주역한국아텔리움 앞, 오치동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임동 발산교사거리(천변우로 사거리), 진월동 시티병원, 지평동 구상무대 정문 앞 삼거리, 양산동 우체국 사거리(본촌동교회), 백운동 휴먼시아단지 앞 도로, 신창동 첨단교차로, 장록동 평동산단1번로 입구 삼거리, 화정동 삼익아파트 사거리(교원공제회관), 동림동 장애인복지회관

사거리(동림초), 비아동광산교차로(비아C사거리), 유동 양유교 사거리, 신가동 신가사거리(미니스톱) 등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 중 9개소(14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공사시행에 따라 일부 차랑통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설문조사

31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참여

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데이터 활용 주체인 시민·기업 등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파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반영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데이터 인

지도, 활용내용, 개선방향 등이다.

설문에서 수렴된 의견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데이터 축적 분야 선정 등 데이터 기반 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또 광주시는 본 수요조사와는 별도로 지난 2월부터 광주시 홈페이지 내 공공데이터 상시수조사 장을 통해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개방 의견을 연중 수렴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인구, 지역안전지수 등 30개 분야, 약 8만 5000여 건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조현호 광주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수많은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정제·개방하는 과정에서 시민·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추진한다”며 “2022년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설문조사와 상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